



머리글

현대일 루도비코 신부 /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시간에 대하여”

‘어바웃타임’(About Time)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2013년에 영국에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로맨틱 코미디 영화인데, 주인공이 시간을 거슬러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설정이 흥미롭습니다. 주인공 여동생이 알코올 중독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고, 자동차 사고를 당합니다. 주인공은 이 사고를 여동생이 피하게 하고자, 여러 번 시간을 거슬러 조작해보지만, 또 다른 식으로 엉망이 되곤 했습니다. 결국, 주인공은 주인공 여동생이 다치는 것을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쳐서 병원에 누워있는 여동생 옆에 밤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결심하고, 극복해야 하겠다는 의지가 생겨야 했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은 그렇게 필요했습니다.

작년 2020년은 우리 모두에게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수용자 형제, 자매님들은 간헐 있는 현실만으로도 힘든데, 재판 기일도 늦춰지고 이송도 늦추어집니다. 시설의 직원이 확진되었다는 소식에 마음이 떨컹합니다. 접견도 끊어지고 제한됩니다. 영치금마저 줄어듭니다. 봉사자님들도 봉사할 수 없음에 아쉽고 허전합니다. 후원자분들도 경제 여건이 어려워집니다. 교정시설에서 성사집행은커녕, 50주년 행사를 잔뜩 계획했던만 계속 취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면, 이 시간을 바꾸어 버릴 수 있을까요.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 두려움을 치워버릴 수 있을까요. 이전에 했던 실수를 돌이킬 수 있을까요.

때로는 견디어야 할 시간이 있습니다. 가만히 지키고, 가만히 견디어야 할 시간이 있습니다. 머물면서 곁에 있어 줘야 할 시간, 아니 곁에도 머물지 못하고 마음만 보내며 응원을 서로 보내야 할 시간이 있습니다.

4월에 봉헌했어야 할 50주년 미사를 12월로 미루어 가깝스로 봉헌하면서도, 비대면으로밖에 할 수 없었기에, 너무 죄송스러웠습니다. 50년 참 많은 분들이 이끌어온 시간들인데 그분들을 초대할 수 없어서 죄송스러웠고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서 그 기쁨을 나누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아쉬웠습니다. 모두가 힘든 시간 중이었기에 하느님께 기쁜 감사를 드리기도 어려웠습니다.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가만히 버티어야 하는 시간. 훗날에 그 시간의 무게를 파악할 수 있겠지요. 그 시간의 의미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겠지요.

50주년 기념미사를 봉헌하면서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 갇힌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은 더하시겠구나. 자신이 행한 행동의 결과, 그 대가의 시간이라고들 주변에서 쉽게들 말하지만, 그 무게감을 견디어야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어쩌면 하느님께서는 우리 위원회가 50주년을 성대한 행사들을 치루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갇힌 이들을 느껴보기를 원하셨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직원 미사



매주 월요일 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는 현대일 루도비코 위원장 신부, 이중현 요셉 부위원장 신부, 김도훈 라파엘 부위원장 신부의 공동 집전으로 센터 성당에서 수용자, 출소자, 피해자, 봉사자, 후원회원들을 기억하며 직원들과 함께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이 시기를 우리 모두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길 기도합니다.

사단법인 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제20차 이사회



11월 21일(토) 교정사목 센터에서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사단법인 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제20차 이사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이사장이신 유경춘 티모테오 주교님을 비롯한 이사, 감사님들과 2021년도 교정사목의 사목적 사업방향과 예산에 대한 논의와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제한적인 사업들이 많아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국 천주교 주교단 사형제도 위험 결정 호소 의견서 제출



12월 9일 한국 천주교주교회의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사형제도 위험 결정 호소 의견서' 제출하였습니다. 주교단은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폐지를 넘어서서 법률적 폐지로 나가야 할 시점에 와 있다. 강력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사형제도 존치와 사형집행 재개 주장이 늘어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강력 범죄를 막기 위해 우리 사회는 더욱 더 노력해야 하지만 극단적 형벌이 그 대안이 될 수는 결코 없다. 오히려 사형제도 폐지야말로 폭력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는 훌륭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형제가 폐지되고 종신형이 입법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회교정사목위원회 50주년 기념 미사



12월 13일(일) 명동대성당에서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님의 집전으로 사회교정사목위원회 50주년 기념미사가 코로나 19로 인해 비대면으로 봉헌되었습니다. 염수정 추기경님은 "자선주일에 50주년 미사를 봉헌하는 것은 뜻 깊은 일"이라며 축하를 전했습니다. 이어, "간힌 이들에게 다가가 희망을 보여주고,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사회교정사목위원회의 일은 예수님께 다가가는 일이며 나아가 이 일을 후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일에 후원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감옥에 갇혀있는 이들이 다시는 죄에 빠지지 않고 전해 받은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 보다 더 따뜻한 사회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미사 중 현대일 위원장 신부는 공로패와 감사패 수상자들의 이력 소개와 헌신적인 봉사에 감사인사를 전했습니다. 사회교정사목위원회가 50주년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봉사자들과 후원자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수용자와 출소자, 피해자 가족 모두에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희생과 사랑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정사목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립습니다

강연희 임마콜라따_서울분류심사원 봉사자

천막을 치고 미사를 드리는 장면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바로 인천 주안3동 천주교회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리하여 1990년대 교리를 마치고 세례성사와 견진성사를 통하여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따르기로 결심을 했을 뿐, 믿음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기에는 부족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매년 뜻하지 않는 악순환의 연속으로 허덕이고 해매일 때 이래서는 안 된다고 다짐하고 저는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 봉사자 교육 문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을 받으면서도 갈등으로 몸도 마음도 무너지는 상태였습니다. 드디어 교육을 수료하고 서울소년분류심사원으로 파견되었고,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탁을 받은 살레시오회의 신부님, 수사님 그리고 모든 봉사자들은 한결같이 밝은 미소와 거침없는 자신감으로 저도 모르게 덩달아 기쁨으로 순수한 활동을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아이들을 만나는 짧은 시간은 아이들에게 놀이와 같은 미니올림픽게임, 또는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하여 다시 한 번 각자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되돌아보고 깨닫는 성찰의 기회를 준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피해자는 느닷없이 생기는 사건으로 고통스러운 나날이 지속됩니다. 그리하여 사회적인 책임으로 피해자의 안전관리와 보호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몸과 마음조차 어디에 기댈 수 없는 그들에게는 현실이 가혹합니다.

가해자 또한 뇌의 질병으로 혹은 습관성이 저지른 결과로 '낙인'이라는 꼬리표가 따릅니다. 본인은 굳은 결심으로 노력을 한들 출소한 이후의 삶이 녹록치 않습니다. 출소 후 삶에 적응하기에는 사회적인 괴리감은 무섭게 다가옵니다. 교정시설에서 생활의 리듬과 그 동안의 공백이 걸림돌입니다. 아무리 노력한들 제자리걸음입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모두는 질병, 불안, 공황, 우울, 고립, 사회적 거리 또한 서로를 믿지 못하고 개인적인 이기심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저도 매주 서울소년분류심사원으로 가던 발걸음을 멈추자 공황장애가 왔습니다. 토요일에는 그냥 밖으로 나가 길거리를 걷습니다. 그리고 지난날이 떠올랐습니다. 행여나 일정이 겹치면 망설이다가 참석을 못했던 날들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립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봉사활동을 한 것이 아니고, 반대로 아이들이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매주 토요일에 주었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포티파르

현대일 루도비코 신부_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포티파르는 이집트 말로 ‘신의 선물’이라고 번역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라’라는 태양신의 선물, 혹은 태양신이 내려 준 사람 정도라는 뜻인데, 요셉은 어머니 라헬이 “주님께서 나에게 아들 하나를 더 보태주셨으면”(창세 30,24)이라고 붙인 이름에서 온 것을 생각하면, 우연치고 대단합니다. ‘하느님께서 보태 주시길 바란다’라는 뜻의 요셉이 우여곡절 끝에 ‘신의 선물’의 이름을 가진 이집트 주인을 만나게 되다니.

요셉의 어머니 라헬은 아들 하나를 더 원해서 붙인 이름이었지만,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하느님이 채워주실 것이라는 뜻이고 이집트에 와서 선물로 받아 채워지게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포티파르를 만난 이후 요셉은 파라오와 ‘왕좌 하나로만’(창세 41,40) 차이 나는 이집트의 재상이 됩니다. 즉, 높은 자리에 오르기까지 수련과 단련의 시간이 필요했고 이집트 제국 경비대장이었던 포티파르의 집에서 수많은 식솔과 재산을 책임지는 관리인으로 지내며 여러 일들을 배웠고, 또 포티파르가 집어넣은 감옥에서 단련이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포티파르는 ‘신의 선물’을 찾아내는 안목이 있었고, 또 요셉을 ‘신의 선물’로 키웠습니다.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그가 하는 일마다 주님께서 그의 손을 통해서 잘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알았다(창세 39,3).

포티파르는 파라오의 신하였고, 경호대장(창세 37,26; 39,1 참조)이었습니다. 아마도 그에게는 감옥에 가두거나 풀어줄 수 있는 권한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고대 근동의 바빌론의 친위대장의 역할, 예레 39,13-14 참조). 때문에 그의 집에 감옥이 있었고(창세 40,3), 그렇기에 요셉은 어떠한 재판도 거치지 않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결정에는 이중성이 있습니다. 재판도 거치지 않고 감옥에 가두었다는 것, 그리고 자기 아내의 말만 듣고, “화가 치밀어 올라”(창세 39,19) 감정에 치우친 판결을 내려버립니다. 요셉의 말은 들어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한낱 “히브리 녀석”, “히브리 종”에 불과했던 요셉이

자신의 아내를 희롱했다면, 감옥에 가두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죽일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요셉의 신뢰를 완전히 거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감옥에 잡혀 온 고위 관리의 시중을 요셉에게 맡기었습니다. “경호대장은 요셉을 시켜 그들을 시중들게 하였다.(창세 40,4)” 그만큼 요셉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요셉을 고위관리 시중을 맡기었기에 훗날 감옥에서 나갈 수도 있고 단순히 출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파라오와 만날 수 있게 되며 큰 역할을 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요셉의 성실성과 지혜, 그리고 하느님의 보살핌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었겠지만, 포티파르의 역할 역시 없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재능을 알아보고 키웠습니다. 아내의 탄원에 어쩔 수 없이 그를 감옥에 넣었지만, 그 안에서도 요셉이 자신의 재능을 썩히지 않고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옥에 가두어 감시하는 것을 뜻하는 감옥(監獄), 혹은 형을 치르는 곳이라는 의미의 형무소(刑務所) 등의 단어가 있지만, 이제는 바로잡아 인도한다는 교도소(矯導所)라고 일컫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쓰던 단어, 간수(看守)라는 단어를 더 이상 쓰지 않습니다. 그저 바라보고 지키는 임무를 하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교도관(矯導官) 혹은 교정직(矯正職) 공무원이라고 일컫습니다. 바르게 인도하는 사람, 곧게 바로 잡는 직무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저 우리와 떨어져 있는 격리시설, 혹은 잡아 가두어 놓는 수용시설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바뀌어 나오는 교정시설로 바라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재능과 시간을 썩히거나 낭비하는 곳이 아니라 발휘하고 키우는 곳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포티파르 같은 분이 많으셔서 재능을 발견하고 키우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실, 포티파르가 했던 업무는 그의 집에 감옥이 있었다고 하니, 교정업무도 관할했겠지만, 분명 오늘날 교정업무를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검사의 역할도 하고 홀로 재판도 해버렸습니다. 오늘날 교정직 공무원, 검찰 공무원, 사법 공무원 중에 포티파르 같은 분들이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능을 알아보고 키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돈과 권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신의 선물’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니, 이런! 생각해보면, 포티파르는 ‘아내’에게 휘둘려 죄 없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었군요. 게다가 자기 측근을 권력자에게 연결해주었군요. 포티파르보다 더 엄격하고 공정하게 자신의 직무를 처리하는 사람이어야겠습니다. 그런 공정한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검찰이,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법부가 되어 억울한 ‘요셉’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피부와 종교가 다른 이민자 ‘요셉’, 집이 없어 더부살이하는 ‘요셉’이라도 차별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소명

김선미 세실리아 / 기쁨과희망은행 운영위원



신앙이 없었던 오래전 어느 날, 아는 수녀님께서 교도소에 함께 가보자 권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높은 담장 안의 사람들은 무섭고 험악하게 생긴 분들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감히 얼굴을 마주할 용기가 없어 핑계를 대며 거절하였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고 성경을 가까이하며 신앙도 성장하면서 담장 안이 궁금하고 가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생애 처음 방문하던 60여 명이 모인 종교집회에 모두 말끔하고 단정한 차림에 선 한 눈빛까지 그동안 꿈꿨던 저의 편견이 사르르 녹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하느님께서 저에게 소명을 주신 듯 그 후부터 편견이 사라지며 나와 똑같이 하느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인데 한때 실수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마음 상처를 보듬어주고 희망과 용기를 갖고 건강한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게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어 매주 한 번씩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종교집회에 참석하면서 주어진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아쉬움이 많게 느껴지던 즈음, 신부님과故 김기섭 요셉 형제님께서 출소한 사람이 사회적응을 잘하지 못해 다시 갇히거나 출소해도 오갈 데 없는 분들에게 취업이나 창업을 도와주어 재범 없는 평화로운 사회를 꿈꾸며 은행을 설립하게 되는 과정에서 함께 시작했습니다.

故 김기섭 형제님은 정계 재계를 두루 다니며 영적, 물질 후원을 위한 부정적인 편견에 맞서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며 신발이 닳도록 뛰어다니시던 그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그동안 취업과 창업을 통해 많은 분을 만나면서 경제적 어려움도 있겠지만, 쉽게 포기하는 분들을 보면 너무 안타깝고 속상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자기 죄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함께 모든 걸 바닥부터 마지막이라 생각하며 죽을힘을 다하여 견디고 이뤄낸 성공한 분들을 보면 감사하고 다시 봉사할 힘이 생기곤 합니다.

별로 한 일이 없는 것 같은데, 감사패를 받으니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섯 텔런트를 받은 사람보다 한 텔런트를 받았음에도 감사하며 더 많은 수확을 내고 싶은 열정으로 특히 마음이 아픈 어려운 이웃과 함께 오늘도 열심히 기도하며 걸어갑니다.

함께 걸을 수 있게 해주신 신부님과 많은 봉사자님께 감사드립니다.

현대일 신부님께

오늘 처음으로 영하의 날씨가 되어 두꺼운 내복을 사서 입고 추위를 덜어내며 며칠 전부터 쓸까 말까 망설였던 몇 자의 글을 드리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미사 참석은 친구들의 자녀 결혼식이 성당에서 치러질 때만 참석한 게 다였습니다.

사실은 돌고 돌아 이렇게 어려운 상황, 이곳에서 신부님을 뵈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무엇이 바쁜지 일상을 바쁘게만 움직이며 살다가 이곳에도 종교 활동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참석하게 되었는데, 첫날에 신부님께서 오셨어요.

예절도 모르고, 사실 아무것도 아는 것 없는 상황에서 고해성사 자리에 서게 되었고 하염없이 뜨거운 눈물만 흘리는 저를 조용히 맞아 주셨어요. 머리에 얹은 신부님의 손이 너무 따뜻하고 알 수 없는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따뜻하고 다정하고 온화한 모습으로 많이 준비하셔서 이렇게 딱딱한 가슴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수 있을까, 그날 참 뜨거운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신부님 말씀 하나하나 기도 등 세세히 가슴을 파고드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든든한 마음이 생겨 수형생활을 잘 해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신부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 후 저는 매주 받아보는 통신교리를 시작했고, 6개월 후에 수료하였습니다. 그때는 이미 코로나19로 접견과 종교 활동이 중지되고 종교 방학을 맞이했습니다. 아직 신자라고 할 만큼의 신심도 없고 종교예절도 잘 모릅니다. 코로나19상태가 호전이 되어 다시 신부님을 뵈게 되는 날이 오면 신부님께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아주 큰 희망사항이거든요. (소망입니다)

어려운 이곳에서 믿음을 시작했기에 나가서도 제대로 정직하게 살고 싶어요. 뭔가 확실하게 마음을 정하고 기도하며 새 삶을 살아내고 싶기에 신부님께 간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많이 많이 부족하고 죄값을 해내고 있지만, 다시는 어리석게 위법하지 않고 살면서 건강이 향상하는 상황이 된다면 나누는 삶도 희망합니다.

신부님을 만나게 되어 기쁘고 감사하옵니다.

건강조심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총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20.11.29. 조OO 드림

서울구치소에 생활하는 자매님이 현대일 루도비코 위원장 신부님께 보내는 편지입니다.
하느님의 사랑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후원 계좌번호

예금주 (사)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농협 386-01-013881

우리 1005-700-335190

국민 375301-04-003539

신한 100-019-558299

하나 209-910017-31705

2021년 1월 후원회원을 위한 월례미사는 취소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으로 인해 1월 후원회원을 위한 월례미사가 취소되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사제들은
매일 후원회원과 봉사자들을 위하여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면 미사 중에 기억하겠습니다.
교정사목 휴대폰 번호 : 010-3732-5093

2020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1.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https://www.hometax.go.kr>)에서 확인 및 출력(1/15일 이후)
 2. 기부금 영수증은 본 위원회에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되어 있는 후원회원에 한하여 발급 가능하오니 연말정산 기간의 혼동을 줄이기 위하여 미리 개인 정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영수증을 우편 신청하신 분에 한하여 1월초 발송)
- * 귀한 사랑을 나누어주신 후원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 ▶ 후원사업부 : 02)921-5094
- ※ 법인설립허가증, 고유번호증은 사회교정사목위원회 홈페이지 (게시판-공지사항)에서 출력 가능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카카오톡 채널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카카오톡채널이 개설되었습니다.
모바일에서도 손쉽게
공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QR 코드를 찍으면
채널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사회교정사목위원회 50주년 기념 영상

1970년 4월 2일 '교도소 후원회'를 설립한 천주교 사회교정사목위원회가 2020년 50주년을 맞아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50년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영상입니다.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오른쪽 QR 코드를 찍으면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산교구 양산 성모올타리

♥ 부산교구 양산 성모올타리

출소자들의 자립을 돕는 공동체 성모올타리는
일반 기술자와 출소자들이 함께 우리밀 100%로 빵을 만듭니다.
인터넷 주문이 가능합니다. **네이버 검색: 이레우리밀**

- ※ 구입문의 : 055)367-2232 / 3만원 이상 주문 시 택배비 무료
※ 농협 351-0425-2610-23 (이레우리밀)
신한 140-012-398858 (이레우리밀)

- ▶ 수제청국장식빵 ₩5,000
- ▶ 수제상투과자 ₩5,000
- ▶ 수제단팥빵 3개 ₩5,000
- ▶ 수제통밀식빵 ₩5,000
- ▶ 수제엄마빵 5개 ₩10,000
- ▶ 수제소보루빵 3개 ₩5,000
- ▶ 우리밀호두과자 30개 ₩10,000
- ▶ 엄마찰보리빵 20개 ₩10,000

● 새로운 교정사목의 가족을 소개합니다. (10/13~11/15)

2020년 10월~11월에는 권경남 헬레나, 김옥경 데레사, 김학의 안나, 김화순 유스티나, 박소미 젤뚜르다, 심무섭 안티 파스, 안지영 베로니카, 윤정희 펠리치타, 이상훈, 이정숙 데레사, 이현숙 사비나, 장희숙 아나스타시아, 전윤경 스텔라, 최영자 마리아말가리다알라코, 황태웅 요셉남께서 새로운 후원회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더불어 거여동성당, 김춘희, 조 성호, 최갑순 유스티노, 홍말자 루시아, 홍진주님께서 기부금을 보내주셨습니다.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